



2017년 7월 23일(제832호) 연중 제1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연중 제16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하늘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있기에 현재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되, 그 부족함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을뿐더러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 하겠습니까: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단점을 숨기려 하기 보다는 하느님 앞에 겸손되어 보여드림으로써 허점투성이인 나를 당신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제1독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서는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곧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제2독서는 나약한 우리를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기도에서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좇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성되이 전례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김진수(요셉) 신부
탈리디(해병9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지혜 12,13.16-19

회답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제 2 독 시

로마 8,26-27

복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 13,24-43<또는 13,24-30>

영성제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진례를 살다

어렸을 때 가진 미사에 대한 기억 가운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부모님과 본당 수녀님으로부터 배운 엄한 교리교육 때문인지 왜 그리 미사가기가 싫었던지, 가더라도 만화방에서 놀다가 어떻게든 늦게 성당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거룩하시도다’ 뒤에 종을 치는데 그 종 치기 전에만 들어가면 미사가 된다고,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잘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도다’ 앞부분은 예비부분 또는 전미사 부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학교에 입학한 후 어느 때가 옛 미사경본을 찾아보니 미사 순서에서 정말 ‘예비(豫備) 미사’라는 표현의 작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豫備)라는 말을 앞 또는 전(前)으로 잘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초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비 신자들이 세례 받은 신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곧 오늘날의 ‘말씀 전례’ 부분을 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 전례’를 뜻하는 ‘제헌 미사’와 대별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기억에도 성찬 전례는 미사의 중심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는 부분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면 기다려서 다음 미사를 보아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말씀 전례가 미사의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성품성사를 제외한 다른 성사 전례나 예식에도 있기 때문에, 성찬 전례는 미사에만 있는 고유 전례이자 중심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전례 중에 최후 만찬 때와 같이 십자가의 제사와 일치, 나눔의 잔치가 성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례는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기념하면서 성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제물을 봉헌하며, 거룩한 식사로 주님과 하나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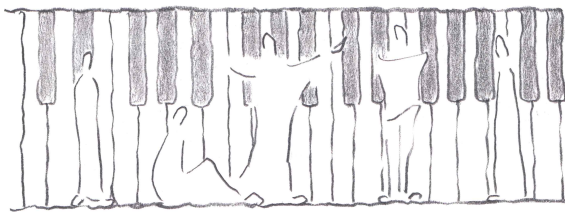
성찬전례

이웃과 일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전례의 원래의 고유한 명칭은 ‘감사 전례’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잔치가 인간적 일치의 체험일 뿐 아니라 종교적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식탁 주위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오직 하느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의 베푸심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때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은 모든 가장(家長)이 행하듯이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들어 아버지를 찬양하는 간단한 기도를 바치십니다. “이 땅에서 빵을 생기게 하신 세상의 왕이신 우리 주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수만큼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한 조각씩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그 다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배부리 먹은 다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성대한 식사 후에 행하듯이 우선 포도주 잔을 들어 하느님을 찬양하는 보다 긴 기도를 다시 바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잔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탁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필(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각자의 음(音)으로

각자 좋아하는
음으로
각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음으로.

자신의 음으로
하늘을 노래해야
합니다.

상화이야기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안나 성인과 세례자 요한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
1499-1500년 작
종이 위 목판화 141.5 × 104.6 cm
네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비록 이 작품은 유화작품은 아닌 드로잉으로만 남겨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작품이다. 안나 성인은 성모님의 어머니로, 안나 성인의 한쪽 무릎에는 성모님이, 다른 한쪽에는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안나 성인과 성모님은 모두 아기 예수님을 받치고 계시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성모님과 안나 성인, 그리고 예수님이 별개이자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 견고한 존재물이자, 기도로, 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삼각형 구도로 그려진 인물들은 얼핏 우리에게 안정감과 견고한 느낌을 주지만, 그려진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무한한 리듬감과 율동감이 느껴진다. 안나 성인이 바라보고 있는 성모님, 성모님이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세례자 요한. 이들 모든 시선의 중심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안나 성인의 손가락과 세례자 요한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아기 예수님의 손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늘로 귀결됨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조용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한 라인(윤곽선)없이, 빛과 어둠의 강약으로만 그려내었다는 것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능호 여현국 신부
<p>◆ 교구장 동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도(2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23일(주일) - Knight of Columbus 모임 때·곳: 7월 25일(화)-8월 2일(수), 미국 뉴욕 	<p>◆ ‘군중의 시간’ 인내</p> <p>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p>

“군(軍) 복음화, 새 열장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